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5월호

Vol.2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FoMo

Forced Mobilization

이슈

- 03 1943 지옥의 문 :
콩깻묵과 검은 다이아몬드
- 04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의 삶 :
드라마 ‘파친코’
- 05 재일조선인관련 영화 소개
- 06 재일조선인, 그들의 삶과 굴곡

소장 유물 소개

- 08 옥산 광산 보고서

역사관 소식

- 10 역사관에서 외친 ‘대한독립만세’
- 11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탐방기

- 12 포모의 투어일지
일제강점기 부산 대청동 투어②

유관기관 소개

- 14 끝나지 않은 우도로 이야기

역사관 방문기

- 16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우리별’의 역사관 방문기

웹툰 공모전 수상작

- 18 ‘아버지의 전보’

애독자란

- 21 틀린그림찾기
(明治大正昭和和繪券 명치대정소화대회권)

역사관 사용설명서

- 22 역사관대학 ‘FoMo 학당’
- 23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부는 따뜻한 희망의 바람을 담다 「샤스타데이지」 편 (꽃말: 희망)
희망의 상징인 샤스타데이지 꽃을 키워내는 포모의 모습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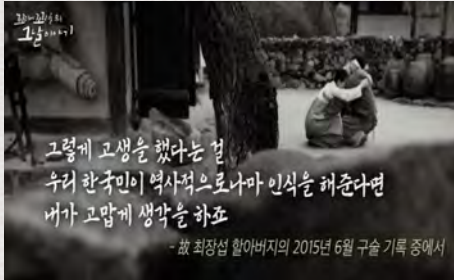
알려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5월 15일 통권 제25호 |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배연우,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추경아, 오다슬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미디어 속 강제동원 1편

“1943 지옥의 문 : 콩깍묵과 검은 다이아몬드”



출처 :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

지난 4월 21일 방영된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1943년 1월, 전북 익산에 살던 열다섯의 소년 최장섭. 그는 마을 면서기 윤씨의 강요로 일본의 일터로 동원된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야구장 2개 크기의 섬 ‘단도 端島’, 하시마였다.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소유인 하시마는 섬 전체에 걸쳐 탄광이 형성돼 있었다. 하시마의 석탄은 뛰어난 품질로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렸다.

하지만 이 석탄을 캐내기 위해 최장섭을 비롯한 조선인 광부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비좁은 갱도를 파고 들어야 했다.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고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고된 작업이었다. 불안정한 작업환경에서 바닷물에 노출된 피부는 짓무르기 일쑤였고, 가스폭발과 낙석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노동 끝에 돌아오는 보상은 콩깍묵으로 만든 주먹밥 한 덩이였는데, 본래 가축의 사료로나 쓰는 콩깍묵은 배를 채워줄 수 없었다. 약속한 급여는 각종 공제금을 제하면 오히려 적자였기에, 일을 할수록 빛이 썩었다.

그가 강제동원된 후 70여 년이 지난 2015년,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한다.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유네스코 신청을 내걸었지만 등재 하루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한다. 최장섭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수기로 남긴 채 2018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후손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잡아줄 것을 바랐다.

남겨진 우리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제동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 | 역사관 오다슬

미디어 속 강제동원 2편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의 삶 : 드라마 ‘파친코’”



출처 : 애플TV

드라마 ‘파친코’는 양곡 수탈, 노무자 강제동원,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재일교포 차별 등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한 가족의 수난을 신랄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글로벌 OTT를 통해 공개된 해당 작품은 국내외 각종 언론 사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성공리에 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작품이 방영되는 동안, 한일양국의 역사와 관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이를 발판 삼아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도 강제동원을 포함한 관련 배경을 설명하며, SNS를 통해 해당 드라마를 소개했다.

때론 잘 만들어진 작품 한 편이 교과서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K문화의 약진으로 드라마 ‘파친코’는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 말한 백범 김구의 말이 유달리 와 닿는다.

글 | 역사관 오다슬

미디어 속 강제동원 3편

재일조선인 관련 영화소개



パッチギ 박치기! (2004)

감독: 이즈츠 카즈유키 / 출연: 시오야 슈, 타카오카 소스케, 사와지리 에리카, 오다기리 조 / 개요: 액션

1968년 교토, 조총련계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은 동급생 여학생을 괴롭힌 히가시 교고생들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고의 박치기왕 리안성과 여동생 경자, 경자를 사랑하게 되는 일본인 코우스케, 안성을 사랑하는 일본인 모모코의 청춘을 그린 영화이다. 일본인 교고생의 시각으로 재일동포와 일본 사회의 갈등을 들여다 본다.

우리 학교 (2006)

감독: 김명준 / 출연: 변재훈, 오려실, 리지옥, 김혜연, 리성대, 조성래, 서영범, 윤태명, 김주령, 박대우 / 개요: 다큐멘터리

김명준 감독이 3년 동안 홋카이도에 있는 조선학교인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머무르며 그들의 일상을 담아 낸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는 재일동포 1세대들이 직접 세운 민족학교이다. 일본에서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조총련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타시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60만번의 트라이 (2013)

감독: 박사유, 박돈사 / 출연: 문정희, 김관태, 현충현, 김철홍, 이경주 등 / 개요: 다큐멘터리

60만 재일동포의 꿈을 안고 전국 제패에 나선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럭비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럭비를 소재로 한 영화이지만 재일동포가 일본 사회에서 착근하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좇아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2020)

감독: 김철민 / 출연: 강종헌, 김창오, 박금숙, 부만수, 서원수, 이동석, 이철 / 개요: 다큐멘터리

과거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과 모진 탄압을 받고 살았던 재일동포 1세대, 그 뒤를 이어 고통과 공포를 되물림 받아 살았던 4세대까지의 재일동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1장 '재일조선인', 2장 '나를 찾아서', 3장 '두 개의 조국', 4장 '조선사람으로 살기 위해'로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한반도 분단 속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전달된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이코노미투데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

미디어 속 강제동원 4편

재일조선인, 그들의 삶과 굴곡



해방 당시 재일조선인 노동자 대다수는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말단의 직업군을 갖고 있었다. 특히 토목, 탄광 군수물자 생산 공장 등 전시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조선인들은 종전으로 인해 군수사업이 해체되자 전면적인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탄광 및 광산 노동자들에게 우선 귀국 조치가 취해졌고 조선인들의 귀국 의지 또한 강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패전 후 일본을 대리 통치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의 소지 재산 제한 규정 및 한반도의 경제와 정치, 치안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선인들의 귀국을 연기하거나 잔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 여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후 급속하게 확산된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만의 삶의 터전을 형성해 나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 이어졌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조선인을 ‘미개’, ‘야만’, ‘나태’, ‘비굴’, ‘경박’, ‘불결’ 등과 같은 단어들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일본인의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멸시관과 적대감은 한국병합 직후부터 본격화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멸시관과 적대감이 내재된 재일 조선인을 향한 차별은 일본 사회 다방면에서 행해졌다.

1947년 발표된 외국인등록령으로 재일조선인은 외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서 ‘제삼국인’으로 규정되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신민’이었던 조선인을 언제든 송환할 수 있게 한 식민 지배의 연속이자 정당한 외국인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었다.



1959년 재일동포 복송 반대 시위(출처: 연합뉴스)



재일조선인 황보강자 어머니의 가족사진
(출처: 경향신문)



재일조선인 차별 논란 광고의 한 장면
(출처: 쿠키뉴스)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에게 일본의 국적을 완전히 박탈하고 외국인 등록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영주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참정권을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차별을 적용하였다. 1959년에는 일본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던 재일조선인을 일본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즉 물리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 복송사업이 본격화되어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민간사회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재일조선인은 일상적으로 신체적 폭력, 취업, 진학, 결혼, 주거 상의 차별을 받았고 출신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해야만 했다. 일본 정부와 민간사회는 재일조선인에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귀화를 하라는 입장을 취하며 식민지배 시기와 다름없는 동화 압력을 가했다.

현재 약 60만 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이국땅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지한 채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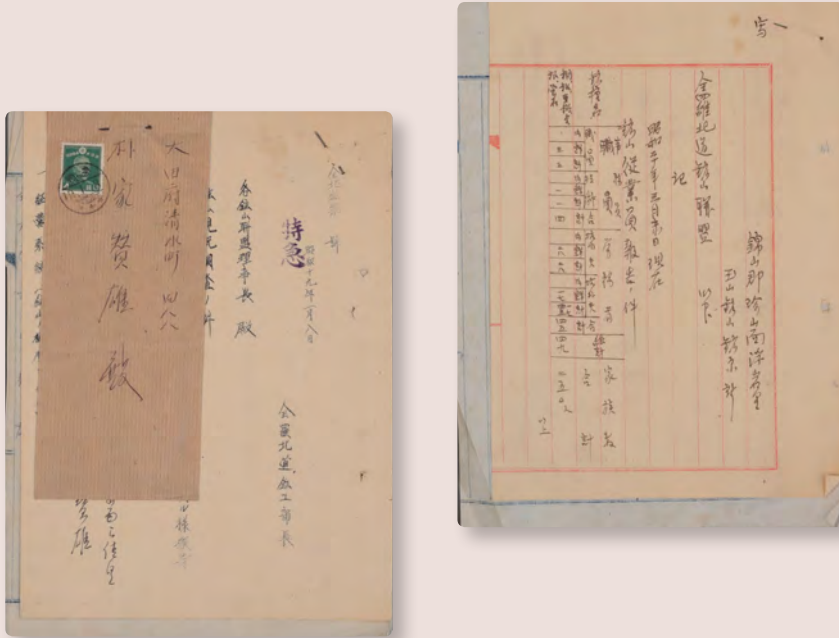
김인덕, 「일제시대 재일조선인사 속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연구」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박미아,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경제활동 : 1945~1950년 암시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이승희, 「근대 이후 일본의 배외주의와 재일조선인」 『일본학』 4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정계향, 「재일조선인, 일본의 지역사회를 살다-해방 후 다카라즈카(宝塚) 재일조선인의 정주와 생활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8, 한국구술사학회, 2017.

글 | 역사관 추경아

옥산 광산 보고서

이번 호에서는 역사관 구입 유물 중 일제시기 국내 광산과 관련된 문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산 종업원 수, 광석 판매 보고, 필요 물품 배급 수요량 조사¹⁾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문서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2년간 국민총력전라북도광산연맹과 국민총력옥산광산연맹 박가찬웅(朴家贊雄)이 주고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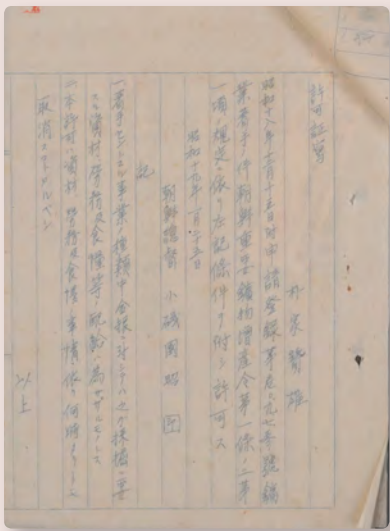
대부분 국민총력전라북도광산연맹이 각 광산 연맹에 보낸 공문과 그에 대한 회신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 기한과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광업착수신고서제출에 관한 건(鉞業着手届提出二関スル件)(총5매)에는 광업착수계와 허가증(사본)이 첨부되어있어 해당 광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1) 짚 가공품, 아세틸렌 등(燈), 광산용 헌장갑과 잡포, 노무자용 특배주(소주) 배급에 관한 건 등 광산의 필요물품 배급 수요량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이 있다.

전라북도 광공(鑛工)부장이 광산 현황 조사 건으로 각(各)광산연맹이사장에게 하달한 공문과 봉투

문서번호와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급(特急)' 스탬프가 찍혀있다. 회신용 보고서는 공문에 있는 양식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보고서를 보면 광산에는 사무원(직원, 기술자)과 노무자(갱내외 인부)가 있었으며,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이 일정 비율로 종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가찬웅(朴家贊雄)이 전라북도광공부장에게 보낸 광업착수계제출 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 문서

광업착수계에는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구면적, 광종명, 광업권자, 착수연월일, 사무소명칭,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가 적혀있다.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옥산광산은 금, 은, 동, 연, 아연을 채굴하던 곳이며, 박가찬웅(朴家贊雄)이 광업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부된 허가증(사본)에서는 '조선중요광물증산령 제1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광업 허가를 명한다는 내용과 제 9대 조선총독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의 직인(생략)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매일신보 본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

증산전선에 위문대 본사서 42개 처 광산 공장에 파견, 한바탕 웃고 일하세 노래, 재담, 경음악이 한 짐(1943년 9월 15일 2면)

“총후의 생산 전쟁도 지금 나날이 치열하여지고 있다. (중략) 산업 전사들의 열렬한 기백은 곧 성스러운 목숨을 바쳐 귀축 미영 격멸에 돌격하는 황군 장병들의 기백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에 본사에서는 그들 총후 산업 전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총후 생산 전선에 더욱 불타는 듯한 진중보국의 지성을 폭발시키는 도움이 되게 하고자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의 후원과 조선연맹 문화협회의 연에 제공으로 산업전사격려위문예능대를 조직하고 방금 중요 광물 비상 증산 강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인 전선 각 중요 공장, 광산에 파견키로 되었다.” (출처: 『친일반민 폭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6, 400-401p.)

글 | 역사관 반선영

역사관에서 외친 ‘대한독립만세’

아픈 역사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역사관



“포도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방역도 꼼꼼히!”



“우와! 귀여운 텀블러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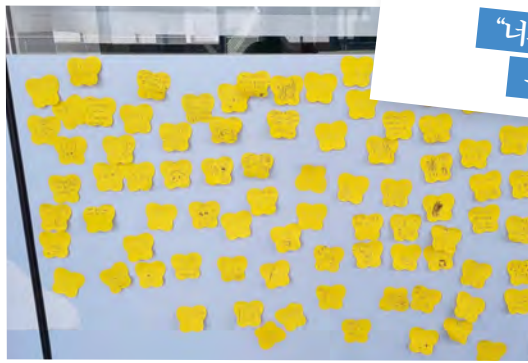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 제정된 날이에요!
그럼 인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어린이들의 미래와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며 ”



“너와 나,
우리의 인권은 소중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주요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알리는 역사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omo.or.kr/museum>)와
인스타그램(@fomo.museum)에서 확인하세요!

글·사진 | 역사관 추경아

포모의 투어일지

일제강점기 부산 대청동 투어 ②

오늘은 대청동에서 경제 수탈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들을 살펴볼거야
 소개할 곳들은 한 거리에 모여 있었어.
 일제강점기로 돌아가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모인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봐!
 당시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수탈하는 거대한 건물들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살았어.
 나라 잃은 고통을 일상 생활 속에서 느껴야 했던거지!



01

대청동거리
(출처: 연합뉴스)

‘미곡취인소’라고 들어봤니? 미곡취인소는 쌀, 콩과 같은 곡식을 거래하던 시장을 말해, 개항 이후 조선에서 생산된 수많은 곡식이 일본으로 보내졌거든. 미곡취인소는 이러한 곡식의 품질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설립됐어. 부산 미곡취인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대. 또 회원제로 운영되었는데, 회원 대부분은 힘 있는 일본인이었다고 해. 당시 부산의 곡식 유통을 일본인들이 장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미곡취인소는 현재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광풍이 불기도 했대. 일확천금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투기 열풍에 참여했지만 지식이 부족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단다. 암울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울부짖음이 지금도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 (출처: 교수신문)



02

부산의 근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방문해봤을 이곳! 맞아. 지금은 재개관을 준비 중인 부산근대역사관이야! 그런데 이곳이 식민지 수탈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것, 알고 있지?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인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설립하였지만 사실은 식민지 지배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책회사로 만들어진 곳이었지. 광복 직후에는 미군의 숙소, 미공보관, 미문화원으로 사용되었어.



조선은행 부산지점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03

현재는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곧 박물관으로 재개관 될 이곳은 원래 조선은행 부산지점이었어. 조선은행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금융기관이야. 조선은행은 일반 민간은행과 달리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보호아래 운영되어서 마치 공공기관과 같았어! 그러니까 1910년에 지어진 조선은행 부산지점은 지금의 한국은행과 민간은행 역할을 함께 했던 거지.



부산은 멋진 곳들,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아픔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곳이란데!
나와 함께 한 다크 투어 어땠어?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나, 포모와 함께 해!

<참고 자료>

교수신문

김민화, 「1930년대 부산미곡취인소의 설립과 활동」 『지역과 역사』 42, 부경역사연구소, 2018.

조명근, 「日帝의 國策금융기관 조선은행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글 | 역사관 추경아



지난 2016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우토로마을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했다.

끝나지 않은 우토로 이야기

재일동포 81년 차별의 역사를 고스란히 재현한 우토로 평화기념관(관장 다가와 아키코, 田川明子)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후손들이 살던 우토로마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기념관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관계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이용안내

- 개관일시: 금~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화요일은 단체 사전 예약만 가능
- 휴관일: 수요일, 목요일, 연말연시(12월 28일 ~ 1월 4일)
- 입장료: 일반 300엔(円), 초등학생 100엔(円), 초등학생 미만 무료
- 찾아가는 방법: 긴테쓰(近鉄) 교토(京都)선 이세다(伊勢田)역 서쪽 출구에서 600m
- 주소: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이세다(伊勢田) 우토로 51-43
- 연락처: (전화번호)81(국가번호)-0774-26-9222, (이메일)info@utoro.jp



지난 4월 30일 우도로 평화기념관의 개관 소식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출처: SBS 홈페이지 영상 캡처)

우도로 평화기념관의 시작

지난 4월 30일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우도로 평화기념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기념관은 3층, 450㎡ 규모에 우도로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물과 퇴거 요구에 맞서 20년 넘게 저항한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입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노동자 숙소를 재현해두었다. 기념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지난해 8월 방화 사건으로 남은 구조물이 서 있다. 당시 사건으로 우도로마을은 일본의 사회문재인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도로 마을의 시작

우도로는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조선인 마을이 되었다. 1940년 교토 군비행장 건설 결정 후, 1943년 군비행장 건설을 위한 조선인 노동자 숙소가 건설됐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군비행장 건설이 중단되며, 조선인 노동자 일보가 남게 됐다. 남겨진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노동자 숙소를 고쳐가며 생활하였다. 우도로 마을은 그렇게 시작됐다.

<참고자료>

우도로 평화기념관 홈페이지(<https://www.utoro.jp/ko/>).

동아일보, 2022년 5월 2일 기사(‘재일교토 81년 차별’우도로에 평화기념관...“한일 가교되길”).

한국일보, 2022년 5월 16일 기사(“재일 조선인 쫓아내려 했다” 우도로마을 방화범,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유영국, 『우도로 문제를 통해 본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성과와 과제』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진은경, 『일본의 우도로 재일조선인 거주권확보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글 | 역사관 장민성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우리별’의 역사관 방문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제 음성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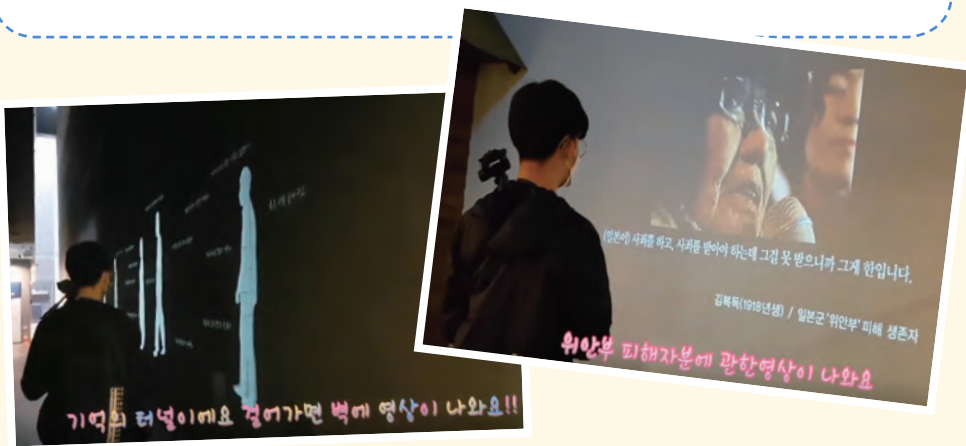
역사관
방문기 ①

친구와 함께 동아리 활동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1층 울림의 방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저와 함께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기억의 터널 그리고 실제 사람처럼 탄광에서 강제노동하신 분들을 재현한 밀랍인형 등 실감나고 다양한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시물들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그 중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매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일제강점기 때 저질렀던 모든 일에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도 강제동원역사관을 세워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 | 부산 남구 최은준



우리별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청소년 동아리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역사를 마주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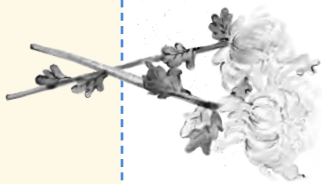
부산에 이사 온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가보지 못한 곳이 아직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 하나였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곳을 더 일찍 찾았어야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 내내 배워왔지만 교과서로 배웠던 역사에 비해 실제로 마주해본 역사는 느껴지는 그 고통의 깊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각종 인적·물적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인들의 삶을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이 시대를 넘어 고스란히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슴이 아팠을 때는 탄광과 위안소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전시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조선인 노무자들이 좁고 어두운 탄광 속에서 흘렸을 피땀과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흘렸을 피눈물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을 시청할 때는 당시에 얼마나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람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혹한 시대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로부터 그 시대를 기억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현 세대에 계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른 시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 시간 내서 꼭 한번 방문한다면 좋을 것 같고, 부산으로 여행 오신 분들도 여행 일정 중에 역사관 방문을 한다면 뜻깊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글 | 부산 남구 김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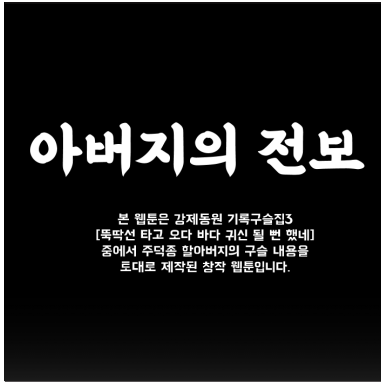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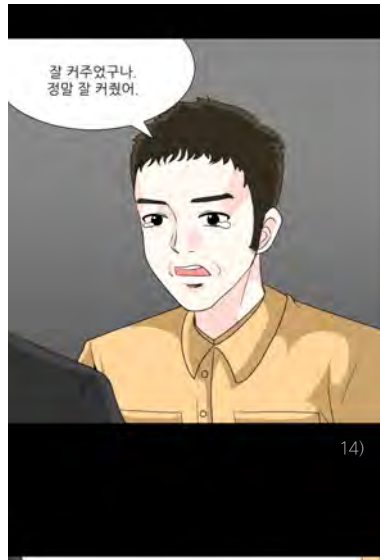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남구 꿈드림 최은준

역사관 방문기 참여안내

역사관을 방문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버지의 전보’







20)



23)



26)



21)



2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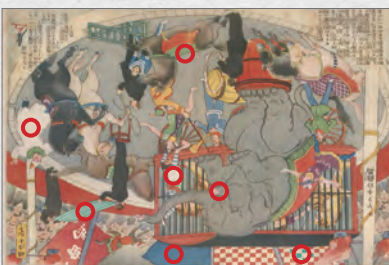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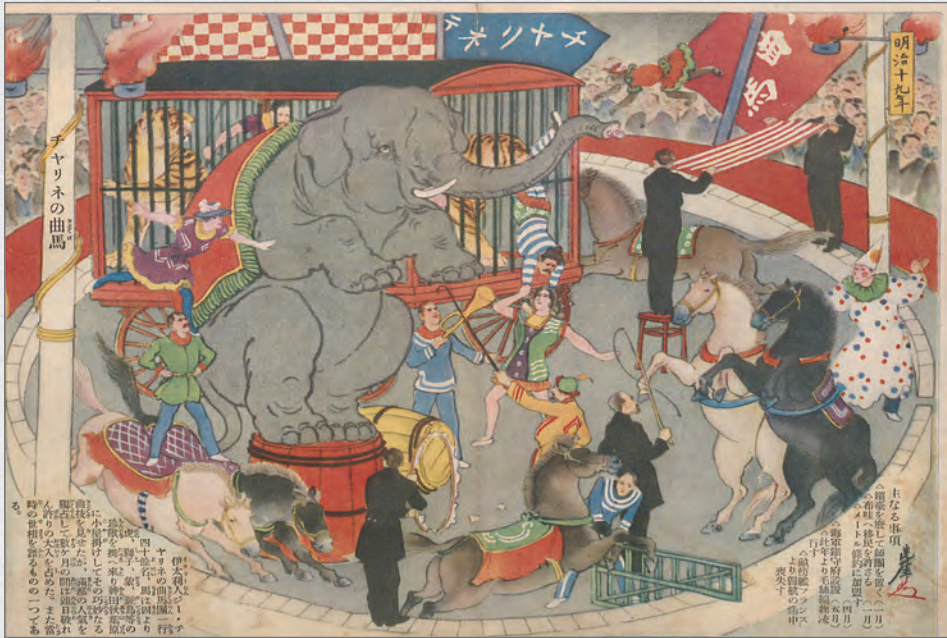
25)



27)

틀 린 그 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7곳을 찾아보세요



明治大正昭和大繪券 명치대정소화대회권

1931년 발행된 것으로 메이지 1년부터 쇼와 5년까지(1868년~1930년), 일본의 주요 사건을 그린 책이다. 총 41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첩장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림은 이탈리아인 키아리니(チャリネ)의 서커스단이 도쿄의 칸다와 아키하바라에서 공연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이 서구와 문화를 교류하고 있음을 선전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말살정책으로 일제의 가혹한 통치 하에 놓인 조선인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철창 속에 갇힌 호랑이의 신세가 마치 조선인같이 느껴진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유물입니다.

역사관대학 'FoMo 학당' 제국주의와 강제동원

2022학년도 1학기

제1강	제국의 유산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	이창현	5. 7.(토)	14:00~15:30	50명
제2강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큰 봉우리, 백범 김구	조형열	5. 14.(토)	14:00~15:30	50명
제3강	제국주의 시대와 그 의미: 근대로부터의 귀결이자 거대한 파국의 길, 1870-1914	정대성	5. 21.(토)	14:00~15:30	50명
제4강	일제하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제국주의 인식	한종민	5. 28.(토)	14:00~15:30	50명
제5강	영도대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야시 시계조의 공민구제사업	이준영	6. 4.(토)	14:00~15:30	50명
제6강	일제의 이주어촌 형성과 조선 어민의 실상	김예슬	6. 11.(토)	14:00~15:30	50명
제7강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1945년 원폭 투하와 원폭이 남긴 상흔	김인선	6.18.(토)	14:00~15:30	50명
제8강	국가폭력과 인권: 남미국가들 중심으로	노용석	6. 25.(토)	14:00~15:30	50명

- **대상** : 일반시민
 - **신청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사전 접수 (051-629-8630, 8600)

※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5~6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일제 강제동원역사관 멀티미디어실에서 학기제 강연 프로그램인 '시민강좌(1학기)'를 운영했다. 1학기에는 '제국주의와 강제동원'이라는 주제로 모두 8강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25일 진행될 마지막 강연은 노용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가 '국가폭력과 인권: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역사관 교육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s://www.fomo.or.kr/museum>)에서 확인 및 참가신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인형극

강제동원 4가지 유형 소개와 보편적 인권적 의미 전달

- 7층 어린이체험관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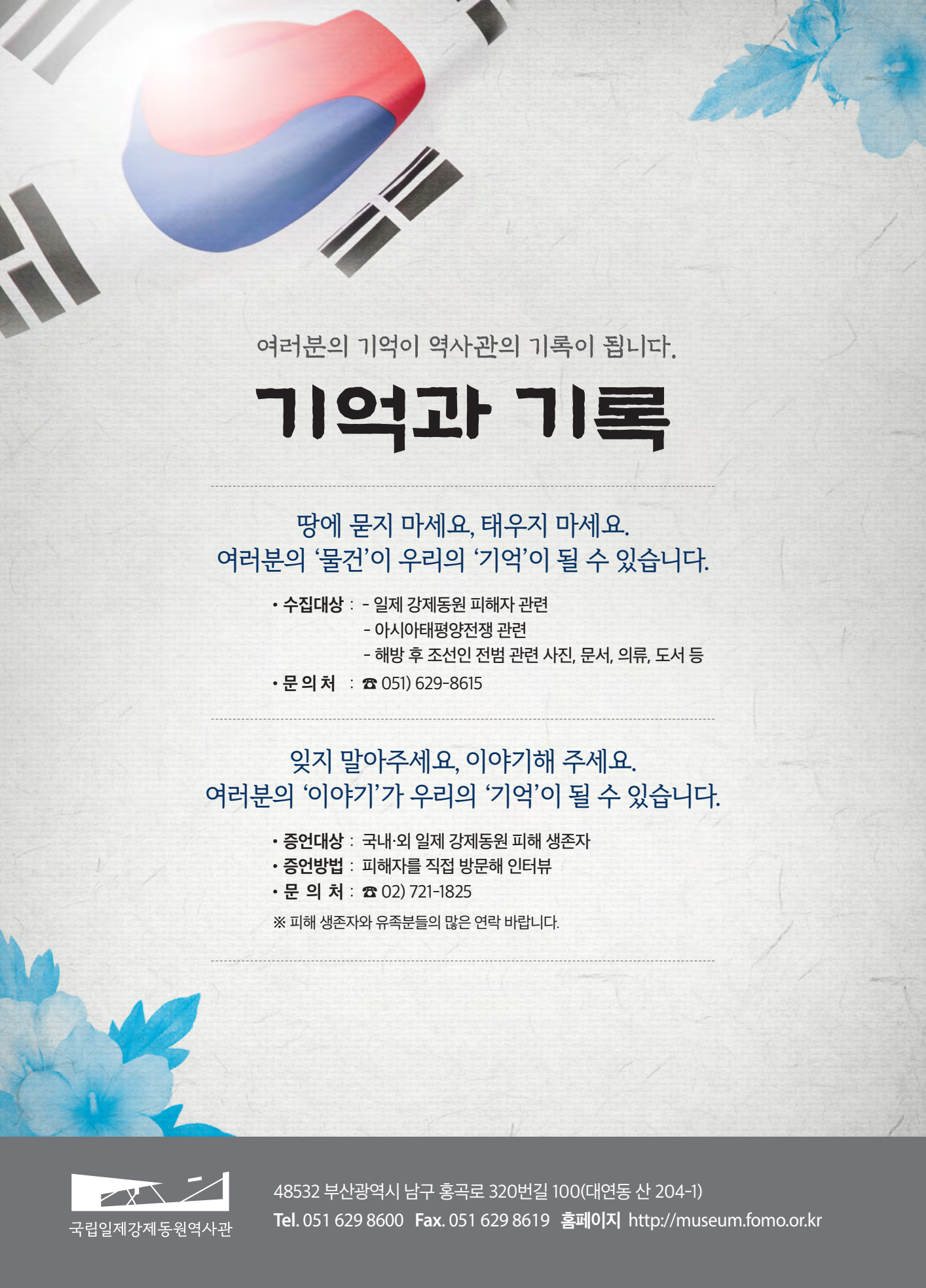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의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의처 : ☎ 02) 721-1825
-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